

2021 November

Hana

Market Monthly

연구위원 서정훈
Tel. 02-729-0195
seojh@hanafn.com



목차

I. 금리	3
I. 달러/원 환율	5
III. 엔/원 환율	7
IV. 유로/원 환율	7

금리

10월 동향

한은 기준금리 동결에도 추가 금리인상 기대 속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글로벌 금리 급등 영향 반영되는 가운데 미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테이퍼링 기대 등으로 상승세 시현

글로벌 인플레이션 재부각 속에 수급상 국채선물 매도세 강화 등으로 상승

- 10월 초,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재차 부각한 가운데,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 강화 등으로 상승 출발. 이어 한은 금리 결정 대기 속에 정부의 장기국채 물량 확대 등으로 상승세 지속
 - 월 초,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재차 부각된 가운데, 대내적 수급상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수 부진과 기관의 손절성 매도가 복합되며 상승 출발
 - 이어 미 고용지표 대기과 금통위의 금리결정에 대한 경계감 속에 정부가 장기물 공급을 늘림에 따른 영향이 장기 구간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형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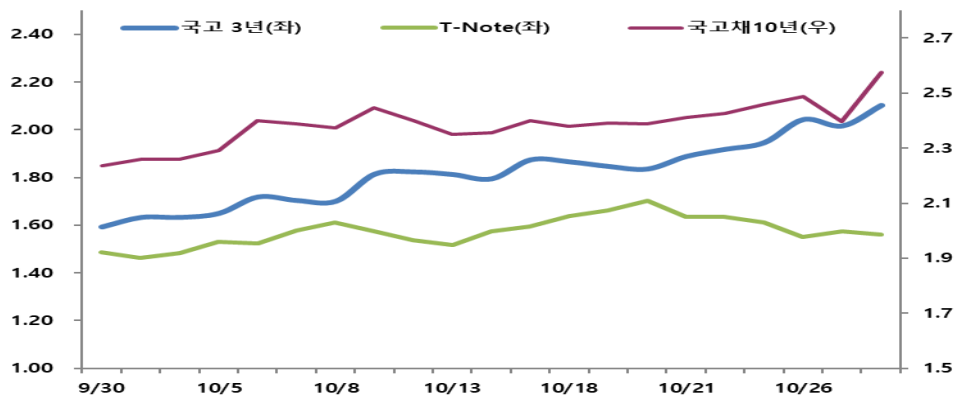
한은의 강한 매파적 색채에 따른 통화정책 영향 반영 등으로 상승 유지

- 중반,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경기 회복력이 예상 경로를 유지하고 있다는 시사 등으로 상승 추세 유지
 - 중반, 한은의 금리 동결에도 국내 경기회복이 예상 경로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 속에 11월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매파적 색채 등으로 상승세 이어지는 모습
 - 다만, IMF의 '22년 세계 성장률 하향과 연준 의사록의 11월 이후 테이퍼링에 대한 가능성 제시 등에도 미 국채 금리가 일부 되돌림 된 영향이 상승 추세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호주 금리 등 글로벌금리 급등세 반영 속 수급상 기관과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도 등

- 후반, 특이 이슈 부재한 가운데 구간별 혼조 국면 시현 후, 호주 등 글로벌 금리 급등에 연동되며 큰 폭 상승 후 당국 개입 등으로 되돌림 양상 시현. 이어 수급상 기관과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도 영향 반영 등으로 급등 시현하며 마감
 - 후반, 특이 이슈 부재하며 구간별 혼조 국면 시현 후,
 - 이어, 정부의 세수 확대에 따른 채무상환 계획 등이 채권시장 강제 요인 있었음에도 기관 선물 매도 및 호주 등의 글로벌 금리 급등세에 큰 폭 상승하였으나, 당국의 구두 개입 등으로 다소 되돌림 보인 후,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선물 매도세 강화 등으로 재차 급등 양상 보이며 마감

주요 시장금리 추이



10월 평균
국고채(3년): 1.83%
T-Note(10년): 1.58%

11월 전망

미 연준의 11월 테이퍼링 실시 속 인플레이션 지속 등이 기준금리 인상 기대를 높이는 가운데 국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 요인도 국고채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칠 전망

평균	1Q21	2Q21	3Q21	4Q21
국고채(3y, %)	1.04	1.12	1.45	2.1 ^(F)

대내적 위드코로나 진입에 따른 경제 회복 모멘텀 강화 속 성장 경로 유지 지속으로 한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확대

- 국내 3분기 GDP 실적이 시장 기대에 크게 못 미쳤으나, 11월 이후 거리 두기 완화 등에 따른 경제 재개 움직임과 경제의 성장 경로를 향하는 추세 등의 기준금리 인상 요인이 국고채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칠 전망
 - 국내 3분기 GDP 성장은 전기대비 0.3% 성장하며 시장 예상에 미치지 못했으나 11월 위드코로나의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내수 진작 속 2차 추경 영향 반영 등으로 성장 예상 경로를 유지할 전망
 - 이는 한은의 11월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국고채 금리 상승 요인으로 예상

11월 FOMC에서의 테이퍼링 실시 발표 영향이 인플레이션 상승세 지속과 함께 복합적으로 국내외 금리 상승 기조에 영향 미칠 요인

- 11월 FOMC의 테이퍼링 실시에 따른 영향이 단기 금리인상 요인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나, 과거 경험으로 경기 측면의 금리 하락 되돌림이 나타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
 - 11월 FOMC 결과 테이퍼링 실시에 따른 영향이 인플레이션 상승과 복합적으로 글로벌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다만, 경기 측면의 반영과 그동안의 테이퍼링 정보에 따른 선반영 영향 및 테이퍼링 시작이 금리인상의 직접 신호는 아니란 점을 강조한 연준의장 언급 등이 금리의 소폭 되돌림에 영향을 미칠 전망

11월 국고채(3Y) 금리는 1.70~2.0% 예상

- 중국 헝다 그룹 신용리스크 우려 상존과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에 따른 중국 경기 하강 우려는 대외적 금리 하락 요인이나 최근 대선 관련 추가 재난지원금 이슈에 따른 국고채 공급 확대 가능성이 하단 제한하며 상호 상충되는 영향을 보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전망
 - 중국 헝다 그룹의 파산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과 미-중 무역 갈등의 재점화 이슈 등이 상존하며 중국 경기 회복에 부담이 되는 측면이 국내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따른 영향은 안전 자산 선호에 영향을 미칠 전망
 - 반면, 국내 대선 관련 이슈로 불거진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이슈에 따른 국고채 공급 확대 가능성은 시장의 국채 매도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중국 관련 요인과 상충되는 영향을 미치며 하단 제한할 것으로 예상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은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요인 · FOMC의 테이퍼링 일정 제시 · 대내적 추가 재난지원금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기업신용 리스크 불확실성 상존 ·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 요인

자료: 하나은행

달러/원 환율

10월 동향

공급망 병목 현상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속 1,200원 터치 후 한은 추가금리 인상 기대, 미 주요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위험선호 반영과 미 3Q GDP 부진에 따른 달러 약세로 1,160원대 후반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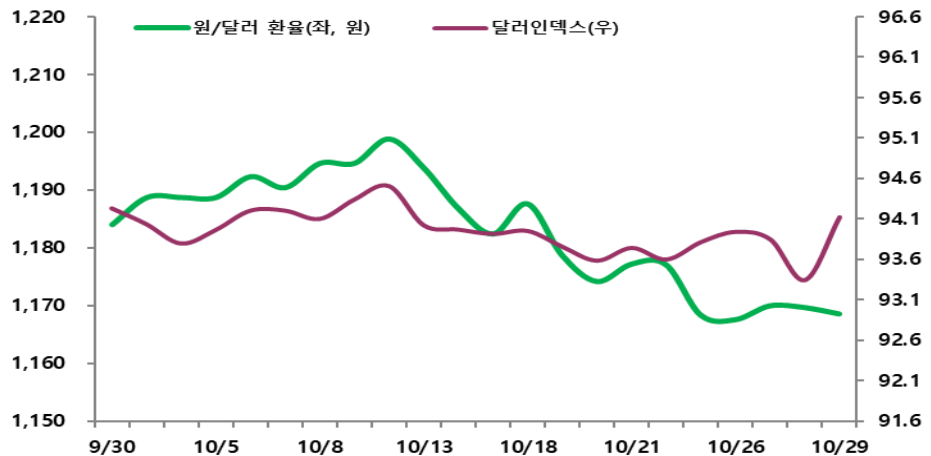
공급망 충격 요인에 따른 인플레이션 영향과 미국채 금리 상승에 변동성 확대 양상 보인다 미 부채한도 이슈 완화 등으로 되돌림 양상

미 기업실적 개선, 한은의 추가 금리인상 기정 사실화 등의 영향 반영

FOMC 대기 속 중국 헝다그룹 파산리스크 완화에 따른 원화 강세와 미 GDP부진 등으로 하락 마감

- 월초, 공급망 병목 현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영향 속 미 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되며 상승 출발 후, 미 부채한도 이슈 완화 등으로 일부 되돌림 시현
 - 월초, 파월 의장의 공급망 병목현상 발언 속 인플레이션이 장기에 이어질 수 있다는 언급 등으로 미 국채금리 상승과 글로벌 증시 위험회피 강화에 따라 상승 출발
 - 다만,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던 미 부채한도 협상 이슈가 다소 완화된 점이 상승 제한 후, 미 고용지표 발표에 따른 경계감 확대되는 양상 시현
- 월 중반,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하며 1,200원 터치 후, 미 금리 상승세 약화 속 미국 주요기업 실적 개선 등에 따른 위험선호 영향, 한은 추가 금리 인상 기정 사실화 영향으로 하락 전환
 - 중반 들어 유가 상승 등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하는 가운데 국내 유가증권 외국인 매도 강화 등으로 1,200원 장중 돌파 후 연준 위원들 매파적 스탠스에도 미 금리 하락 전환 영향 반영 속 상승세 둔화
 - 이후, 미 금리 상승 완화와 미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글로벌 증시 상승세가 위험선호 영향 미친 가운데 일부 미 경제지표 부진 등이 달러 약세에 영향을 미치며 1,170원대 후반까지 하락
- 후반, 중국 헝다 그룹 신용리스크 재확산 우려 완화 속 미국의 3Q GDP가 시장 예상을 크게 하회하며 달러가 약세 흐름 전환한 영향 등으로 원화 강세 흐름 속 마감
 - 중국 헝다 그룹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재확산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국내 중공업 실적 호조 등이 원화 강세에 영향을 미친 형국
 - 이어 미 3Q GDP 결과가 시장 예상을 크게 하회함에 따른 달러 약세 반영 및 월말 수출 달러 매도 강화 등으로 1,160원대 후반 마감

달러/원 환율 추이 및 환율 변동성



10월 달러/원 평균환율 : 1,182.8
10월말 달러/원 환율 : 1,168.6

11월 전망

연준의 11월 테이퍼링 실시 결정에 따른 영향이 달러 강세를 견인하겠지만, 선반영 이슈 등이 제한 요인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내적 금리인상 요인과 수출 경기 호조 등이 상단을 제한할 요인으로 판단

평균	2Q21	3Q21	4Q21	1Q22
달러/원 환율(원)	1,118	1,159	1,180 ^(F)	1,185 ^(F)

국내 위드코로나 시행 속 수출 호조 등이 성장 경로 유지할 전망 속 추가 금리인상 요인 등이 원화 강세 요인

연준의 테이퍼링 실행 영향 반영 등이 달러 강세 견인 요인

11월 달러/원 환율
1,165 ~ 1,190원 변동 예상

- 대내적 위드코로나 국면 전환 속에 거리두기 완화와 경제 활동 재개 등에 따른 경제 체질 강화 및 이에 따른 성장 경로 유지 속 추가 금리인상 요인 등이 원화 강세 견인할 전망
 - 11월 실시되는 대내적 위드코로나에 따른 거리두기 완화 속 경제 활동 재개가 국내 경제 성장 경로 모멘텀을 뒷받침하며 원화 강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여기에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조선과 반도체 등의 수출 개선 속 한은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요인 등도 원화 강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대외적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하는 현 상황에서 연준의 11월 FOMC의 테이퍼링 실시 일정 제시에 따른 점이 달러 강세 견인하며 전반적 환율의 상승 흐름이 다소 강화될 전망
 - 공급 측면 충격 지속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요인이 사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그동안 주춤했던 미장기국채 금리의 상방이 열려있다는 측면이 글로벌 증시 조정 등에 다소 영향을 미치며 위험회피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여기에 11월 FOMC에서 테이퍼링 실시에 따른 영향도 상당한 시장 충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속에 미국 위드코로나 상황에서의 기준금리 인상의 시장 기대 등도 달러 강세 견인할 것으로 예상
- 우호적이지 않은 중국 헝다 그룹 크레딧 우려감이 불확실성 지속할 가능성 내포 속 미-중 무역 갈등 첨예화와 중국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등이 안전자산 선호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중국 헝다 그룹 신용리스크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지속 가능성 상존함에 따른 영향은 당분간 이슈화 시점에 안전자산 선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여기에 미-중 무역 갈등 재확산 우려가 존재하는 가운데 중국내 전력난 등에 따른 중국 경제 위축 가능성 등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기감으로 확산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도 위안화 약세 및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헝다 관련 신용리스크 • 공급 충격에 따른 인플레이션 지속 • 연준의 테이퍼링 시간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른 경제재개 • 한은 추가 금리 인상 요인

자료: 하나은행

이종통화

엔/원 전망

연준의 테이퍼링 실시에 따른 달러 강세 반영 속 BOJ의 완화적 기조, 자민당 총선 승리 후 정치리스크 완화, 위드코로나 전환 등에 따른 엔화 약세 기조 등으로 상승 예상. 엔/원 환율은 테이퍼링 영향의 상대적 완화 약세로 상승 전망

10월 달러/엔 평균환율 : 113.2
10월 엔/원 평균환율 : 1,045.3

11월 엔/원 예상범위 : 1,040~1,060

- (동향) 미 국채금리 상승세 되돌림 속 미-일 금리차 축소와 달러 약세 영향 반영되며 강세 출발. 이어 미 인플레이션 영향과 미 금리 상승 전환에 따른 시장 테이퍼링 기대 등으로 약세 전환. 중반, 미 CPI 예상치 상회에도 단기 달러 급등 되돌림 되며 강세 전환 후, 연준 매파적 스탠스 반영으로 큰 폭 약세 되돌림 시현. 월 후반 들어, 미 국채금리 상승세 제한되며 엔캐리 수요 약화 흐름 보인 가운데, 미 인플레이션 장기화 전망 등으로 약세 흐름. 엔/원 환율은 한은 추가 금리인상 기대 및 조션 호조 등에 따른 완화 상대적 강세로 하락
- (엔/원 전망) 미국 테이퍼링 실시에 따른 미 국채금리 상승 등이 미-일 금리차 확대에 영향 미치며 엔화 약세 다소 지속할 것으로 예상. 완화적 BOJ스탠스 역시 동 요인으로 판단
 - 연준 테이퍼링 실행, 미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대내 금리차 확대 속에 다소 완화적이었던 BOJ 스탠스 등이 엔화 약세에 영향 미칠 전망
 - 여기에 최근 자민당 총선 승리에 따른 정치불확실성 위험 감소 및 위드코로나 전환 속 감염자 감소 등도 엔화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엔/원 환율은 테이퍼링의 영향이 완화 약세를 상대적으로 심화할 전망으로 소폭 상승 예상

유로/원 전망

상대적 유로 경기 불확실성 이어지는 가운데 ECB 완화적 기조 지속과 연준 테이퍼링 일정 제시에 따른 달러 강세로 유로 약세 전망. 유로/원은 위드코로나 진입에 따른 상대적 완화 강세로 소폭 하락 예상

10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1598
10월 유로/원 평균환율 : 1,371.9

11월 유로/원 예상범위 : 1,355~1,375

- (동향) 유로존 장기금리 상승 및 CPI 최고치 경신 등으로 강세 출발 후, 미 인플레이션 강화 영향 반영되며 약세 전환. 중반 미 CPI 예상치 부합 속 FOMC의사록의 테이퍼링 일정 시사 가능성 등에 따른 불확실성 감소 속 강세 흐름 전환. 이후, 미 증시 상승세 속 헝다그룹 파산 유예 등의 위험선호 요인 반영하며 강세 흐름 지속한 가운데 월 후반, ECB의 통화완화 지속 결정에도 미 3Q GDP 부진 등에 따른 달러 약세로 강세 흐름. 유로/원 환율은 원화의 추가 금리인상 기대, 위드코로나에 대한 경제체질 개선 기대 등으로 원화의 상대적 강세 속 하락
- (유로/원 전망) 미국 테이퍼링 일정 제시에 따른 달러 강세 영향 반영 속 ECB의 완화적 스탠스 지속과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 등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 등이 상방 경직 요인으로 예상
 - 유로존의 경기회복력이 여전히 미약한 가운데 완화적 통화 기조 지속 및 연준의 테이퍼링 실시에 따른 달러 강세 영향이 유로 약세를 견인할 전망
 - 연준 통화정책의 영향이 유로, 원화에 전반적 강세를 보일 전망 속에 본격적 위드코로나 국면 진입에 따른 원화의 상대적 강세로 유로/원 환율 소폭 하락 기조 예상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1.11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RBA 통화정책회의	3 美 FOMC(~4)	4 BOE 통화정책회의	5	6
*주: 1.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P]-잠정치, [F]-확정치, [SA]-계절조정, [A]-예고치, 0안은 미전치	한 10월 수출/수입(16.7%/31.0%, YoY) 10월 무역수지(\$4200M) 10월 Markit PMI 제조업(52.4) 미 10월 ISM 제조업지수(61.1)/ISM 고용(50.2) 10월 ISM New Orders(66.7) 10월 ISM 구매물가지수(81.2) 10월 Markit 제조업 PMI(59.2) 유 10월 Markit PMI 제조업(58.5) 일 10월 지분은행 PMI 제조업(53.0)	한 10월 CPI(0.5% MoM, 2.5% YoY) 중 10월 Caixin 제조업 PMI(50.0) 호 11월 RBA 기준금리(0.10%)	한 10월 외환보유고(\$463.97b) 미 10월 ISM 서비스(61.9) 10월 Markit PMI 종합(57.3)/서비스(58.2) 9월 제조업수주(1.2%) / 내구재주문 유 10월 Markit PMI 종합(54.3)/서비스(54.7) 10월 실업률(7.5%) 중 10월 Caixin 종합 PMI(51.4)/서비스 PMI(53.4) 일 10월 지분은행 PMI 서비스(50.7)/종합(50.7)	미 FOMC 금리 결정(0.00% ~ 0.25%) 연준 준비금잔고 금리(0.15%), 9월 무역수지(-\$73.3b) 3Q 비농업부문 노동생산성(2.1%) 3Q 단위노동비용지수(1.3%) 유 9월 PPI(1.1% MoM, 13.4% YoY) 독 9월 광장수주(-7.7% MoM, 11.7% YoY) 영 11월 영란은행 기준금리 0.10% Powell Holds Press Conference Following FOMC Meeting	한 9월 BoP 경상수지, 상품수지 미 9월 소비자신용지수(\$14,379b) 10월 민간부문 고용자수 변동(317K) 10월 실업률(8.5%) 10월 시간당 평균 임금(0.6% MoM, 4.6% YoY) 10월 경제활동 참가율(61.6%) 유 9월 소매판매(0.3% MoM, 0.0%, YoY) 독 9월 산업생산(-4.0 MoM, 1.7% YoY)	
7	8	9	10	11	12	13
중 10월 무역수지(\$66.76b) 10월 수출/수입(28.1%/17.6%, YoY) 10월 외환보유고(\$3200.63b)	유 11월 섀넥스 투자자지대지수(16.9)	미 10월 NRB 소기업 낙관지수(99.1) 10월 PPI(0.5% MoM, 8.6% YoY) 유 11월 ZEW 서베이 예상(21) 중 10월 신규 위안화 대출 CNY(1660.0b) 10월 통화자금 M0(5.5%, YoY) 10월 통화자금 M1(3.7%, YoY) 10월 통화자금 M2(4.2%, YoY) 독 11월 ZEW 서베이 예상(22.3) Powell to Make Opening Remarks at Fed Diversity Conference	미 10월 CPI(0.4% MoM, 5.4% YoY) 10월 실질 평균 시간당 임금(-0.8%, YoY) 10월 주간 평균 실질 소득(-0.8%, YoY) 11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0월 실업보험 연속수급 신청자수 중 10월 CPI/PPI(0.7%/10.7%, YoY) 일 10월 통화량 M2(4.2%, YoY), M3(3.8%, YoY) 10월 공적기계 주주 전년비(11.1%)	한 10월 통화자금 L(0.9%, MoM), M2(1.5%, MoM) 10월 실업률(3.0%) 일 10월 PPI(0.3% MoM, 6.3% YoY) ECB Publishes Economic Bulletin EU Commission Economic Forecasts	한 10월 수출물가지수(1.0% MoM, 20.2% YoY) 10월 수입물가지수(2.4% MoM, 26.8% YoY) 유 9월 산업생산(-1.6 MoM, 5.1% YoY)	미 11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경기연황
14	15	16	17	18	19	20
	중 10월 소매판매(4.4%, YoY) 10월 광공업생산(3.1%, YoY) 일 9월 광공업생산 9월 설비가동률(-3.9%, MoM)	미 10월 수출물가지수(0.1% MoM, 16.3% YoY) 10월 수입물가지수(0.4% MoM, 9.2% YoY) 10월 광공업생산(-1.3%, MoM) 10월 설비가동률(75.2%) 유 3Q 고용(0.7% QoQ, 1.8% YoY)	미 10월 주택착공건수(-1.6% MoM) 10월 건축허가(-7.7% MoM) 유 9월 건설생산(-1.3% MoM, -1.6% YoY) 10월 CPI(3.4% YoY) 일 10월 수출/수입(13.0%/38.6%, YoY) 10월 무역수지(- \$622.8b) 9월 핵심기계수주(-2.4% MoM, 17.0% YoY)	미 10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23.8) 11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1월 실업보험 연속수급 신청자수	한 10월 PPI(7.5%, YoY) 미 11월 캔자스시티 제조업활동 10월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 지수(-0.13) 유 9월 ECB 경상수지(13.4b) 일 10월 전국CPI(0.2% YoY) 독 10월 PPI(2.3% MoM, 14.2% YoY)	
21	22	23	24	25 韓 금융통화위원회	26	27
	한 10월 소매판매 중 1년 위안화 대출금리(3.85%) 5년 위안화 대출금리(4.65%)	한 10월 소비자심리지수 미 10월 기준주택매매(7.0%, MoM) 10월 Markit PMI 제조업/서비스/종합 유 11월 유료존 Markit PMI 제조업/서비스/종합 11월 소비자지대지수 일 11월 지분은행 PMI 제조업/서비스/종합	한 12월 기업경기실사제 제조업/서비스/제조업 미 11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 지수 3Q GDP물가지수 / GDP연간화QoQ 3Q 개인소비 10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0월 실업보험 연속수급 신청자수 독 11월 IFO 기업경기지수(97.7)	한 11월 BoK 7일 Repo 금리(0.75%) 미 11월 FOMC 회의록 공개 10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경기연황 10월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수 10월 PCE 디플레이터 일 10월 PPI서비스(0.9%, YoY), 도쿄 CPI 독 12월 Cfk 소비자 기대지수	유 10월 M3 통화자금(YoY) 중 10월 산업생산	
28	29	30				
	유 11월 경기/산업/서비스/소비자 기대지수	한 10월 광공업생산, 경기순환명 선행지수 변동 미 11월 델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11월 MINI 시카고 PMI 9월 FFA 주택가격지수 중 11월 PMI 제조업/서비스/제조업/종합 일 10월 광공업생산, 연간 주택착공지수, 실업률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자료는 하나은행 외환포털(<http://fx.kebhana.com>) → 환율 → 외환시장동향 → 월별금리환율예측자료)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